

“크나큰 삶, 사랑하고 존경합니다”...조문 발길 줄이어

빈소 첫 날 표정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 조문 첫날인 11일 오전부터 서울 세브란스병원 고인의 빈소에는 각계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차려진 이 여사의 빈소는 여야를 가리지 않은 정치권 인사들이 찾았다.

유가족 측은 애초 이날 오후 2시부터 조문객을 공식적으로 맞이할 예정이었지만, 오전부터 조문객이 끊임없이 몰려들어 조문 개시 시간을 오전 11시30분으로 앞당겼다.

문화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빈소를 찾아 고인의 영정 앞에 머리를 숙였다. 문 의장은 조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정신이 없고 울컥하다”며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문 의장은 “10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이 여사가 ‘아프고 견디기 힘든 인생을 참으로 잘 참고 견뎌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이 여사께 그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싶다”고 애도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침묵한 표정으로 당 지도부와 함께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조문했다.

이 대표는 조문 후 “김 전 대통령은 제 정치적 스승이었다”고 운을 떼고는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유가족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여사님이 그동안 아주 훌륭하게 잘 살아 오신 것을 본받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오전 11시45분께 빈소에 들어섰다.

황 대표는 “평생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희호 여사님의 소천에 저와 한국당은 깊이 애도한다”며

여야 정치권·청와대 비서진 조문...가족·동교동계 빈소 지켜

이해찬 “훌륭한 삶 본 받겠다” 황교안 “민주화 유지 받들겠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남기셨던 유지를 잘 받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바른미래당의 단체 조문에 앞서 오전 10시 30분께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손 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느낌”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들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평화에 큰 획을 그은 분으로, 여성과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비슷한 시각 빈소를 찾았다.

정 대표는 “지난주 월요일 아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찾아뵈었다. 오른쪽 귀에 대고 ‘동교동 택에서 뵈고 싶다’고 했는데 알아 들으시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의 민주와 동지로서 굳건하게 옆자리를 지켰다.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빈다”고 애도했다.

윤영찬 전 청와대 소통수석은 일반 조문객 중 가장 이른 오전 10시께 빈소를 찾았다. 윤 전 수석은 조문 후 “여성·사회 운동가였다가 김 전 대통령님을 만나서 평생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고난을 겪고 이기며 민주주의를 끌고 오신 거인”이라고 애도했다.

오후 2시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 12명이 단체 조문을 하고 복유럽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조의를 직접 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후 3시께 빈소를 찾은 계획이다. 오후 5시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후 6시 30분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각각 조문한다.

이 여사의 2남 흥업씨와 3남 흥결씨 등 유가족들은 오전 10시20분께 빈소에 도착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동교동계 막내’ 민주당 설훈 의원과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인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양수·김희철·김방림 전 의원 등 동교동 인사들도 대거 빈소를 지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광주시청 분향소 고(故) 이희호 여사의 분향소가 11일 오후 광주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됐다. 광주시청 간부들과 시의원 및 서구청 공무원 등이 추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희호 여사 걸터온 길



이희호 여사(맨 오른쪽)의 이화여고 재학시절 시절 모습.



1990년 10월 15일 단식하다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당시 김대중 평민당 총재를 간호하는 이희호 여사.

▶ 2000년 12월 10일 김대중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 후원에서 열린 2천명 어린이와 의 만남에서 감사장을 받은 뒤 어린이들에게 답하고 모습. 오른쪽으로 이희호 여사가 보인다.



▼ 2000년 6월 13일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부고 받은 북한, 조문단 보낼까

DJ 서거뎐 파견...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 기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이희호 여사를 추모하기 위해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북측에 이 여사의 부고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조문단을 보내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의 조문단 파견이 단절된 남북대화를 이어가는 계기를 마련한 적이 있어 조문단 파견 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 기대도 나온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주요 남측 인사의 장례에 조문단을 파견해왔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1일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별세와 관련해 “(이 여사의) 부고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차려진 빈소를 조문한 뒤 “북한에서 조문단이 오는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다.

정치권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해 온 이 여사가 별세하면서 북한이 조문단을 보내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여사가 생전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여준 예우를 고려하면 조문단 파견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여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

해 2011년 12월 26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상주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당시 북한은 이 여사의 속소로 김 전 대통령 내외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사용한 백화원초대소를 제공하는 등 극진히 예우했다.

김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북한은 남측에 조문단을 파견한 바 있다.

북한은 2009년 8월 18일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다음 날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조문을 보내고 특사 조의 방문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8월 21일 북한은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6명으로 구성된 특사 조의 방문단을 보냈다.

통일부는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북측이 조문단 파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 당국에서 (북측) 조문단이 온다는 가능성을 예단해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반면, 북한이 남한에 한미공조가 아닌 북남공조를 하라고 연일 압박하는 상황에서 조문단 파견을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도 있다. 조문단 파견 자체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가능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1566-9988

8 5 1
1 6 5 2 4
6 8 2 4 7 5 8 1
2 5 1 6 4 9 7 8 3
1 3 0 7 5 8 4 9 2
2 4 6 3 7 1 2 8 0
4 6 2 8 1 0 9 7 3
2 7 0 2 1 4 2 0 2
4 1 7 2 9 9 0 0 2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